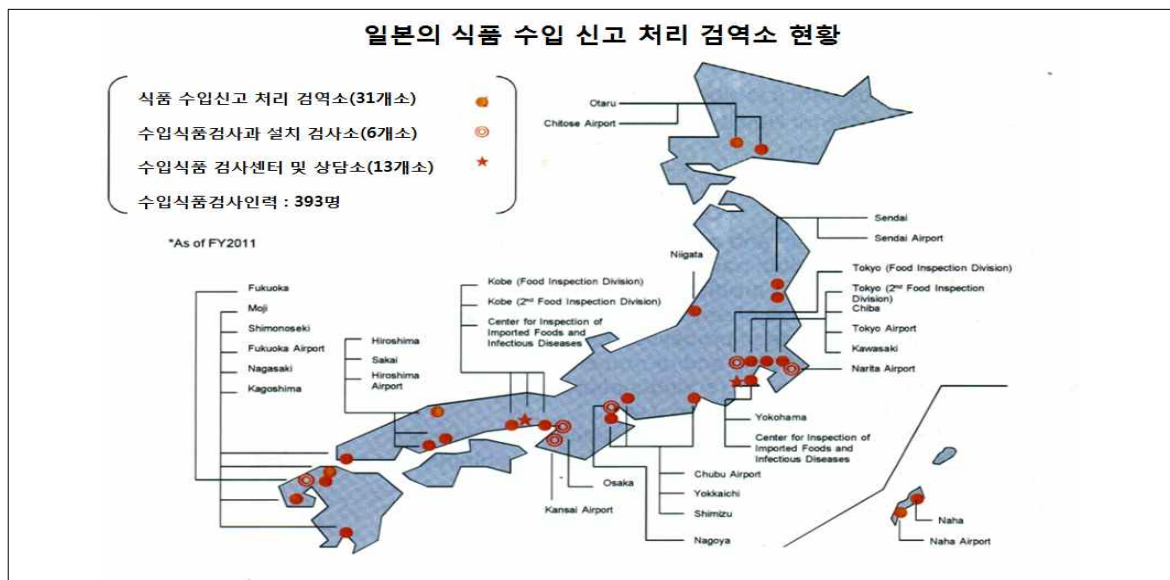


일본 검역소 검역검사 체계

가 일본의 수입식품 검역절차

□ 일본의 검역소 현황

- 수입식품을 신고처리를 담당하는 검역소는 일본 전국에 31개소가 있으며, 그중 수입식품검사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나리타 공항, 도쿄, 나고야, 오사카, 간사이 공항, 후쿠오카 총 6개소이며,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분석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도쿄와 고베 2개소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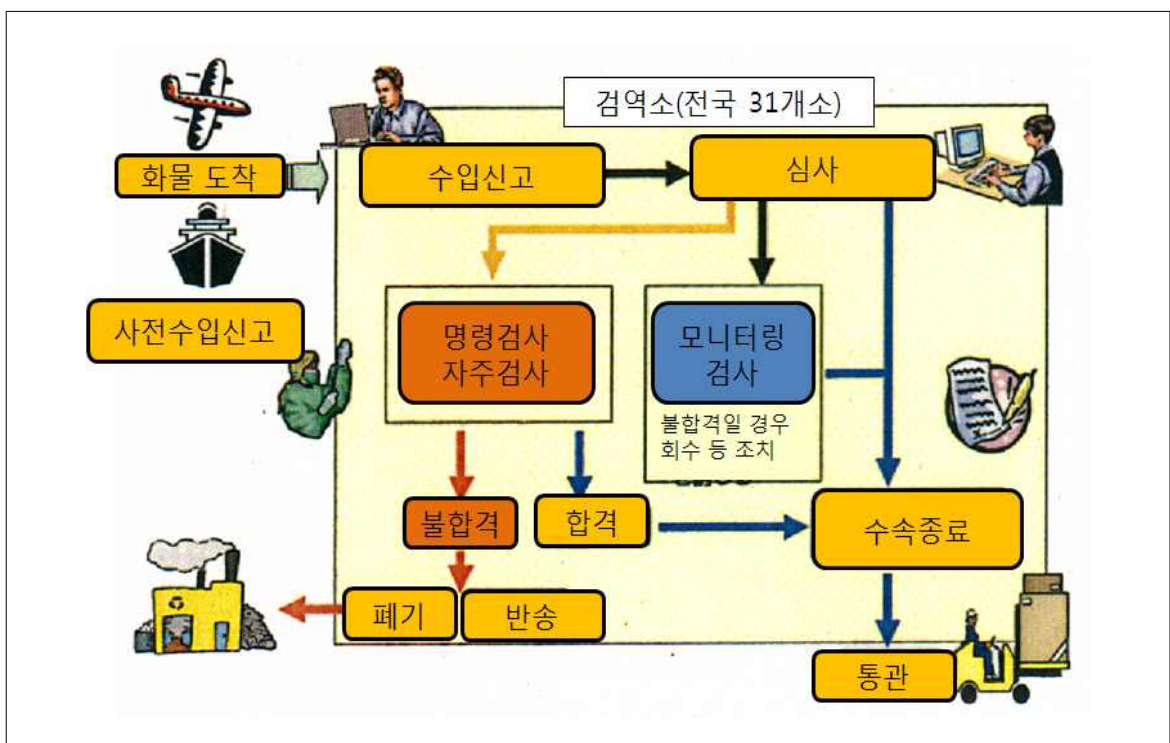


□ 일본의 수입식품 검역체계 절차도

- 일본 내에 화물이 도착하면 FAINS 온라인 시스템을 (Food Automated Import Notification and Inspection Network System)을 통해 수입 신고가 접수되며, 자동심사 후 각 검역소에 수입식품신고서 정보를 발신하게 됨.
- 각 검역소에 수입식품신고가 도착하면, 각 검역소에서 즉시 통관이 될 품목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품목을 구분

-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는 품목은 수속이 종료되어 즉시 통관절차를 밟고, 명령검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샘플이 채취되어 검역소의 검역센터 및 민간 지정검사센터로 보내져 검사를 실시하게 됨.
- 검사 결과 합격이 판정될 경우 수속이 종료되어 통관이 이루어지며, 불합격인 경우에는 폐기나 반송절차가 이어짐.

<일본의 검역체계 절차도>



나 요코하마 검역소

□ 요코하마 검역소 검역신고 및 심사현황

- 신고 건수 : 800~1,000건/1일
 - 모든 수입식품은 신고해야함을 법으로 규정 (식품위생법 27조)
- 심사 인력 : 8명
- 수입신고의 90%가 온라인 처리(신고-심사)되며 현재는 후생성만 데이터 보유하고 있으나 2013년까지는 일본의 모든 성, 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논의 중
 - 검역소는 관세청 NACCS 세관전산망과 수입식품 전산망인 FAINS 이 연결되어 있으며 검역소, 수출입, 항만 관련 정보포털센터 운영 중. 수출국 검사소와도 연결되어 있음.(호주)
- 현장검사(관능검사) 장비 보유현황
 - 컨테이너 X-RAY는 없고, 컨테이너를 오픈해서 샘플링 확인(저울, 소독기 등 보유)

□ 수입식품 보세창고의 검역대기 물량 시료채취 방법

- 식품감시과 직원 2인1조로 하루 약 10건 채취(9시~17시), 채취한 검체는 분석연구실로 운송하여 잔류농약 검사 실시
 - 크기에 따른 샘플량 채취기준 및 방법에 의해 창고업자 입회하에 채취
예) 적두 2,100푸대 : 13개 푸대에서 총 1kg 채취(랜덤으로 샘플링)
 - 검역소 검사원이 창고에서 검체 채취하여 검역소 실험실(요코하마 or 고베 검사센터)로 시료 보내서 검사하며, 실험실이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민간 택배회사를 활용하여 시료 운송. (냉장·냉동 운송/최대 소요기간은 1일)